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도 기념물 지정예고

한국임업진흥원 조사결과 537년 수령 확인... 도내 가장 나이 많은 팽나무 추정

군산시는 옥서면 선연리에 위치한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예고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가 만들어지고, 사라진 하제마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 600여년을 살아온 나무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여겨 지난 3월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신청했다.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의 수령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조사결과 537(±50)년으로 확인됐으며, 나무의 크기는 직경 209.8cm, 반경 104.9cm다.

전문가들은 "다른 지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팽나무에 비해 나무의 크기와 모양새가 더 좋고, 기상목의 기능과 계선주(繫線柱)의 기능을 한 나무"이며, "수령확인을 통해 도내 팽나무 중 나이가 가장 많은 팽나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9년 12월 시민의 전화로 나무의 존재를 확인한 후 1년여간의 조사를 통해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신청 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채행성 문화예술과장은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는 명승 제113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천연기념물 제501호 '군산 말도 습곡구



군산시는 옥서면 선연리에 위치한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예고 됐다.

조' 등과 함께 군산의 자연유산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로 "추후 주변환경정비 및 보호를 통해 사람과 자연의 어울림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는 30일간의 지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온라인 문화강연

26일 문화가 있는 날 비대면 문화행사 라탄공예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5월 문화가 있는 날 비대면 문화행사로 '온라인 라탄공예'를 진행한다

초급 '바구니 만들기'와 심화 '미니갓등 만들기'를 오는 26일 전주박물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온라인 강연한다.

온라인 강연 동영상은 전주박물관 홈페이지(jonju.museum.go.kr)의 행사 카테고리인 '온라인 문화체험실'과 유튜브에서 '국립전주박물관'을 검색하면 쉽게 관람할 수 있다.

초급 '바구니 만들기'의 경우 온라인 동영상과 함께 체험키트를 선착순 40명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키트 신청은 17일~20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홈페이지(jonju.museum.go.kr)에서 가능하다.

한편 '라탄'은 동남아 지역에서 재배되는 등나무에서 뽑아낸 얇은 나무줄기를 뜻하며, 이를 이용해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것을 '라탄공예'라고 한다.

라탄공예는 나무줄기에 물을 적셔 모양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와 우리네 전통 모자인 '갓'의 모양을 담은 '미니갓등'을 만들어 실용성 및 인테리어 소품 기능까지 할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을 선사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



국립전주박물관은 5월 문화가 있는 날 비대면 문화행사로 '온라인 라탄공예'를 진행한다.

해 외부 문화 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집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강연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문화향유권의 확장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태권도박물관,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장용갑) 국립태권도박물관은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교실로 온(ON) 우리는 태권도 박물관 탐험대(이하 태권도 박물관 탐험대)는 도내 24개 초등학교에서 신청한 학급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소장품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7가지 태권도 이야기영상 시청과 미리 학교에 전달한 빛나는 태권! 챌린지체험 키트를 만들어 선생님, 친구 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진행중인 태권도 겨루기와 성장하다. 기획 전시를 온라인으로 감상해보는 등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태권도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한다.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방문해 진행되는 대면 교육인 태권 팔죽 할머니를 부탁해도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손인형극 동화 구연이야기로 만나는 태권도와 태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태권도원 상설공연 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립태권도박물관 누리집 또는 전화(063-320-0509)로 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탄소·예술 특별기획전' 작가 공모

(재)전주문화재단(대표 백옥선)은 전북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단장 고영호)과 공동으로 '2021 탄소·예술 특별기획전' 개최를 위한 참여 작가를 10일~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탄소 매체에 관심 있는 도내 시각분야 예술가로, 지원신청서, 포트폴리오, 작업 계획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 한 후, 2차 전문가 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일곱 명의 작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팔죽예술공장에서 열리는 '2021 탄소·예술 특별기획전'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탄소예술의 발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탄소작가를 배출·육성해 문화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기획전은 탄소소재 융합과 문화예술의 협업을 통해 탄소섬유와 예술과의 융·복합 전시 첫 시도로, 예술가의 시선이 담긴 창작물을 통해 일반인과 공유하지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에 선정된 작가들은 창작지원금과, 탄소섬유 재료지원, 교육 등이 지원되고, 탄소섬유와 접목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작품을 보면 누구나 탄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탐고자 탄소에 예술작품으로 재해석하고 탄소작가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고창 전문 문화기획자 양성 나서

고창문화관광재단, '열(없)는 학교' 교육생 21일까지 모집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은 3기 고창 전문 문화기획자 양성 교육인 '열(없)는 학교' 교육생을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고창에서 활동하고 내 삶의 문제를 문화적인 방법으로 함께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20명 이내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특히, 청년(만 19세~39세)일 경우 우선 선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열(없)는 학교'는 자신의 삶과 고창 나아가 지구의 문제를 어떻게 함께 열(없)는 고민하는 과정이다. 교실, 선생님 등 기존 수업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격의 없이 각자의 삶을 기록하고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숨어있는 공간에서 진행되는 현장 위주의 교육이며 총 8회 과정으로 ▲오리엔테이션 ▲탐색 과정 ▲실행 과정 및 멘토링 ▲결과공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열(없)는 학교'는 주민 주도형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으로 지역 내 문화인력 발굴과 양성을 위해 기획했다"고 전했다.

한편, 총 49명에 수료생을 배출한 고창 전문 문화기획자 양성 교육은 올해로 3기를 맞아 고창군민의 문화 활동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고창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ttp://g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역과 함께하고 협력하는
이씨
대표 백경문

전주시 완산구 새마을 241, 엘드아파트상가 302호
☎ 063-221-7257 ☎ 0303-3441-7257
☎ 010-6641-7257 ✉ zestguy@hanmail.net